



인사말 >>>



특허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특허정보서비스 전문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 원장으로 새로이 취임해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유영기 전임원장께서 그간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룩한 커다란 업적을 제가 이어 나가게 되어 기쁨에 앞서 우선 어깨가 무거움을 느낍니다. 저는 총무처를 시작으로 동력자원부와 산업자원부를 거쳐 최근 특허청 차장에 이르기까지 지난 29년 동안을 공직에 몸담아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공직생활에서 축적된 경험과 지식재산권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국특허정보원을 세계 일류의 특허정보 분석 및 활용지원 기관으로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특허정보원은 우수한 두뇌와 전문지식을 갖춘 고급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젊음과 패기를 두루 겸비한 조직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제가 이처럼 젊고 창조적인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고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특허가족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세계경제가 지식기반경제로 급속히 이전됨에 따라 특허, 디자인 등 무형의 지식재산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등 선진 각국은 지식재산을 국가핵심의 성장엔진으로 채택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국가 연구개발 사업 수행 시 특허동향 조사가 의무화된 가운데, 특허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한국특허정보원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는도 중차대하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 한국특허정보원이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충실하고 완벽한 특허행정의 지원입니다. 한국특허정보원은 선행기술의 조사, 서면서류의 전자화 등 특허청 업무를 지원·보좌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지금 심사의 양과 질의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 달성을 목표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특허정보원도 이에 부응해 가일층 노력해야겠습니다.

둘째, 국가 R&D 사업에 필요한 특허정보조사 사업을 내실화 시켜나가야겠습니다. 최근 이러한 특허정보조사 사업에 대한 정부예산과 이를 요구하는 정부부처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인지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부처들의 수요를 면밀히 예측하고 대응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민간에 대한 특허정보 분석서비스 사업을 강화해 나가야겠습니다. 현재 한국특허정보원 예산의 10% 남짓한 정도가 이 사업의 수입에서 충당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이 수입의 비율을 높여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민간 업체와의 충돌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특허기술정보서비스, 즉 KIPRIS의 고급화 추진입니다. R&D 종사자와 특허업무 관계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기술과 특허에 친숙해지기 위해서는 KIPRIS의 양과 질이 높아져야 합니다. KIPRIS에 탑재된 정보량을 늘리고 이용의 편의성을 높여 일반 국민에게 보다 친숙한 서비스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특허정보원에 대한 특허가족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특허가족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앞날에 건승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 10. 25

한국특허정보원 원장 김 열